

발간번호 2022-21

TOPIA



모든 인터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도시부평 아카이브 시리즈

엑스컴 아카이브 민중가요 아카이브



문화도시부평



문화도시부평이 이즘과 함께 대중음악 역사를 기록한 지 3년째다. 대중음악의 역사를 발굴하고 전·현세대 인천 뮤지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되었다. 임진모 평론가를 비롯한 이즘 평론가, 예술가의 일러스트를 정성을 다해 그려준 권민지 작가에게 감사드린다. 부평이 문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대중음악뿐 아니라 인천의 역사 속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민중가요도 함께 기록했다. 오랜 기간 민중가요를 아카이브 한 단풍님께도 감사를 전한다. <부평사운드 -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는 인천과 연관된 예술인 인터뷰 19회, 민중가요 인터뷰 7회 총 26회의 인터뷰를 모았다.

키보이스의 김홍탁, 인천 최초의 여성 드러머 김삼순 등 애스컴 시절 활발히 활동했던 뮤지션부터 미스트롯, 팬텀싱어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강혜연, 고영열 등 후배 뮤지션도 함께 했다. 자신의 삶과 인천에 대한 기억과 애정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김홍탁은 인터뷰에서 ‘키보이스’라는 그룹은 그 자체로 “큰 행운이자,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화도시부평에게 ‘지역예술인’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 행운이 계속 이어져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길 바란다.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황 유 경



CONTENTS

에스컴 아카이브 시리즈

김홍탁	08
김삼순	13
자니 리	17
서수남	22
버텀라인X락캠프	27
강혜연	34
고영열	40
프롬올투휴먼	45
오헬렌	51
이철호	55
나의 노랑말들	60
채제민	66
권인하	70
조유진	75
이권형	79
박상도	84
이박사	90
파제(Pa.je)	95
배드램	99



CONTENTS

민중가요 아카이브 시리즈

최도은	106
하태준	111
손호준	115
손은화	119
이동언	124
최경숙	129
이주현	134



문화도시부평
아카이브 시리즈
엑스컴 아카이브

열일곱 번째 만남(MEET)

김 홍 탁



웹진 이즘(IZM)이 문화도시부평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부평 MEETS 시리즈>는 인천과 부평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는 시리즈 기획이다. 지금까지 관련한 이곳 출신의 여러 뮤지션이 자리해 그들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인천 부평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한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키보이스'와 '히식스'에서 활동한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김홍탁이다.

멋스럽게 샌 백발에 딱 붙는 청바지. 선글라스 속 눈동자는 호롱불처럼 빛났다. 차분한 말투에 여유가 묻어 나왔지만, 스타와 뮤지션을 단호하게 구분하기도 했다. 로커 특유의 애티튜드와 예술가의 자의식이 충만한 그는 '평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성격처럼 과거의 반추를 뒤로 한 채 미래의 목표에 골몰해 있었다.

물론 한국 대중음악사의 발자취인 그의 경력을 생략하기는 어렵다. 최고의 인기 록 밴드 '키보이스'로 데뷔했고 '히파이브'와 '히식스'를 통해 독자적 음악영지를 건설했다. 전성기 무렵인 1972년부터 14년간 이어진 미국 체류기는 오인된 것처럼 음악적 공백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1992년에는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설립, 18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중학생 시절 친구 집 위층에 살던 미군병사에게 기타를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우리 말처럼 원활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익혀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던 시점에 기타에 빠진 게 큰 행운이었다. 당시 '목포의 눈물',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처럼 부드러운 곡들밖에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군 병사를 만나 현지 스타일을 체득할 수 있었고 오래 배우진 못했지만 커다란 수확이 되었다. 의사소통은 말이 안 통하다 보니 바디 랭지를 주로 활용했다.

1964년 키보이스 데뷔 때 얘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다 함께 모인 건 1963년으로 기억하고, 1964년에 첫 번째 음반이 나왔다. 우리의 음반이 비틀스보다 먼저 나왔던 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다. (비틀스의 데뷔 앨범〈Please Please Me〉는 1963년 3월 22일에 나왔다) 당시 키보이스의 주요 레퍼토리는 비틀스의 곡들과 김영광이 작곡한 '그녀 입술은 너무나 달콤해'였다. (원년 멤버는 김홍택 차중락 차도균 윤항기 옥성빈이었다)

키보이스 1집의 대표곡은 '정든 배는 떠난다'였죠.

그 당시엔 멤버들의 자작곡이 아닌 기성 작곡가들의 곡을 받아 부르는 시절이었다. 김영광 선생이 작곡한 '정든 배는 떠난다'는 애초 트로트 선율이 완연해 우리가 추구한 록 풍으로 편곡했다. 비틀스의 영향을 받아 사우팅 창법을 도입했고(첫 소절의 '달그림자에'를 들어보라) 6도, 7도 코드를 첨가해 화성학적으로 더욱 풍성한 편곡을 완성했다. 그래도 '정든 배는 떠난다'가 뜬 데는 복합적인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키보이스 시절 차중락의 죽음은 안타까웠던 기억이겠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매일같이 함께 생활했던 차중락은 순정파 로맨티스트였다. 그렇기에 그의 사망과 관련 가짜 뉴스가 많아서 마음이 아팠다.

미8군 무대에서의 키보이스 인기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당시 미8군 쇼에서 '컨템포러리 뮤직'의 최고봉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달랑 다섯 명이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비틀스로부터 점화한 록 밴드의 전성시대와 키보이스의 등장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키보이스의 음악에서 김홍택이 갖는 의미는요.

우선 모든 게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다. 처음 데뷔한 그룹에서 좋은 처우를 받았고, 무엇보다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행복이었다. 송창식, 윤형주의 무대로 잘 알려진 세 시봉에서 가장 먼저 공연한 것도 우리며 방송국, 지방공연과 극장 쇼를 누비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신중현과 애드포(Add4)는 키보이스와 달랐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키보이스는 명백히 비틀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차중락이라는 뛰어난 보컬이 있었음에도 하모니의 비중을 매우 높게 가져갔다. 반면 신중현의 음악은 롤링 스톤스처럼 거친 기타 사운드가 주를 이뤘다. 신중현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음악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기반을 닦은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생각한다.

키보이스를 떠나 히파이브를 결성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시에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에 푹힌 상태였다. 헨드릭스의 우드스톡 공연을 보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그에 영향을 받아 사이키델릭, 하드록을 향한 음악적 야망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뿐이지 키보이스 멤버와의 어떠한 불화로 떠난 것은 아니다.

키보이스와 히파이브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히파이브는 최현이 가세하면서 히식스로 바뀐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플레이보이 컵 쟁탈’이라는 보컬 그룹 경연대회가 열렸다. 1969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회 대회에서는 키보이스가 대상을 받았고, 2회와 3회 연속으로 히식스가 수상했다. 대중성에 초점을 둔 심사위원은 키보이스에 좋은 점수를 줄었지만 히파이브와 히식스의 음악적 시도를 높게 평가한 심사위원도 있었다.

히파이브 다음인 히식스에선 더욱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보였다. 히식스와 키보이스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히식스 활동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창의성을 맘껏 펼쳐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전형적인 미국 음악에서 탈피해 사이키델릭 록 그룹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In-a-gadda-da-vida’를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등 틀에 구속되지 않았다. 한번은 명동 오비스캐빈에서 원래 약 17분 정도인 이 곡을 45분으로 늘려 잼(즉흥 연주) 형식으로 연주했다. 기타 솔로만 15분 정도 했던 것 같다.

서울 시민회관에서 산타나의 ‘Black magic woman’을 연주하다 중간에 돌연 6명의 멤버가 동시에 드럼 연주를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기도 했다. 사이키델릭과 젊음의 코드가 일치했던 때라 관객 반응도 좋았다. 키보이스 시절에 비해 자작곡 비중을 높인 점도 구별점으로 꼽고 싶다.

히파이브와 히식스 시절, ‘초원’, ‘초원의 빛’, ‘초원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초원 시리즈’는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노래의 소재가 조금은 획일화되어 있었다. 자연의 소재를 활용해 신선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초원’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다. 그게 대박이 나서 서울 곳곳에 ‘초원 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초원 세탁소’가 생겨날 정도였다. 사운드 적으로는 트로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히식스만의 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다.

이어서 김홍탁의 부평 애스컴 회고담이 이어졌다. 그 이야기를 통해 속된 말로 ‘그가 얼마나 잘나갔는지’를 느꼈다. 인천 출신의 그는 애스컴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했다. 키보이스의 일원으로 애스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그는 순간 과거 여행을 다녀온 듯 우수에 젖었다.

미8군 무대는 당대의 K-뮤지션들에게 프로페셔널리즘을 제공해주었고 숙련을 통해 쌓은 음악적 자양분은 한국에 소울, 펑크, 재즈 등 장르 음악의 뿌리가 되었다. 조용필과 ‘사랑과 평화’ 또한 미8군 출신임을 아시는지. 김홍탁의 증언은 ‘과거 없이 현재 없다’는 간명한 진리를 재확인해줬다.

부평 애스컴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애스컴은 미군 총괄 기지 중에서도 가장 크고, 뭐랄까 부유한 부대 중 하나였다. 당시 가장 많은 공연을 펼쳤던 곳이라 마음의 고향 같다.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비틀스의 고향 리버풀 처럼 인천 또한 항구도시, 개화 도시이다 보니 당시 외국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인천 출신 뮤지션 혹은 밴드가 유독 많다.

K팝과 연결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애스컴에서 활동했던 많은 뮤지션들의 음악과 활동이 작금의 K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허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극히 한정된 인물들만 기억할 뿐이다. K팝 뮤지션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서 세월 속에 잊힌 이들과 그들의 음악을 반추하고자 한다.

김홍탁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곡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최현이 부른 히식스의 ‘당신은 몰라’겠지만 음악적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곡은 1970년에 발표한 히식스 1집〈HE6 Vol. 1〉의 수록 곡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이다.

1972년이면 전성기였는데요. 그럼에도 홀연히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결심을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한다. 엉뚱한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중음악의 본토 격인 미국에 부딪혀 보고픈 마음이 컸다. 떠난 뒤 약 14년 6개월을 미국에서 보냈다. 어떻게 살아도 아쉬운 점, 좋았던 점은 공존할 수밖에 없기에 후회는 없다.

미국으로 떠난 후 음악관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세상과 나 자신이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음악 또한 자연스레 변화해왔다. 미국 생활 초기에 일류 호텔에서 스탠더드 재즈를 연주했다. 본성이 로커이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점차 적응해나갔다. 후에 퓨전 재즈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박인수가 부른 1980년 작 '너처럼 예뻐수야'의 펑키(Funky)한 사운드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미래 대중음악의 중심엔 재즈가 있다고 보았고 실용 음악학원이라는 말 대신 서울재즈아카데미란 이름을 사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홍탁은 서울재즈아카데미에서 18년간 원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재즈아카데미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얻은 보람은 무엇인가요.

축구 경기서 스타플레이어만큼이나 경기 전반을 조율하는 미드필더가 중요한 것처럼 곡 제작의 전체적인 과정과 정을 조율하는 뮤지션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서울재즈아카데미가 이러한 뮤지션들의 산실 역할을 해서 기쁘다. 현재 BTS의 곡 녹음에 참여하는 뮤지션, 테크니션 중 아카데미 출신이 더러 있는 거로 안다.

현재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 록은 힙합이나 EDM에 밀려 침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생을 록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물론 안타깝다. 역시나 좋은 곡이 발표되어야 록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본다. 신중현 선배님이 '빛속의 여인'을 비롯한 많은 명곡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처럼 말이다. 결국 우리는 대중음악 뮤지션이기 때문에 대중이 사랑하는 음악, 좋은 곡을 만들어내야 한다.

선생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뮤지션 혹은 밴드를 다섯 팀만 소개해주세요.

'Rock around the clock'으로 로큰롤의 시작을 알렸던 빌 헤일리 & 히스 코메츠(Bill Haley And His Comets)와 비틀스(Beatles), 앞서 언급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산타나(Santana, 그의 휴대폰 벨 소리는 'Samba pa ti'였다.) 그리고 조금 의외로 들리겠지만 시카고(Chicago). 재즈 록 퓨전 밴드 아닌가.

김홍탁 선생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 키 보이스를 계승하는 해피 밴드와 히식스의 음악을 연주하는 567NU와 함께 유튜브를 통한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계획 중이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처럼 <K팝 뮤지션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고 싶다. 한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양평, 인천,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네 도시에서 <K All-Star Group>이란 이름으로 자선 공연을 펼치고도 싶다.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

인터뷰 : 임진모, 김성욱, 염동교, 장준환, 정다열

사진 : 정다열

정리 : 임진모, 염동교

기획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열여덟 번째 만남(MEET)

김 삼 순



웹진 이즘(IZM)이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하는 < 음악 중심 문화도시 부평 MEETS 시리즈 >는 인천과 부평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는 시리즈 기획이다. 지금까지 관련한 이곳 출신의 여러 뮤지션들이 자리해 그들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인천 부평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번 열여덟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인천 최초의 걸 밴드 '레이디 버즈'의 드러머 김삼순이다.

올해 브레이브걸스 '롤린(Rollin)' 역주행은 위문 열차 공연 영상으로부터 시작했다. 특히 병사들이 의자 위로 올라가서 가오리 춤을 따라 출 만큼 흥겨워하는 모습은 군 생활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전폭적인 지지의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도 걸그룹의 공연은 많은 병사들의 위안이 되어주었다. 인천 출신 여성들로 결성된 6인조 걸 밴드 레이디버즈는 전국의 미군 부대 클럽을 누비며 병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양손에 쥔 드럼 스틱, 숏컷 헤어스타일, 몸에 딱 맞춰 떨어지는 근사한 옷. 지금 봐도 세련된 모습으로 공연하던 사진을 보여주는 레이디버즈의 드러머 김삼순은 그때와 다름없이 생기가 넘쳤다. 타지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이 부평이니 애스컴 역시 내 고향이다'라며 밴드 활동 시절의 추억과 애스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도 인천 그린 실버 악단, 인천 팝스 오케스트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김삼순을 만났다.



우선 인천 최초의 걸밴드, 레이디버즈 데뷔에 얽힌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레이디버즈는 여자들끼리 시작한 그룹이다. 그룹명도 숙녀를 뜻하는 '레이디'와 새들이 조잘거리는 모습을 연상한 '버드'가 합쳐진 단어다. 근데 '레이디버드'(Ladybird)를 검색하니 무당벌레가 나오더라. 55년 전 그때만 해도 단장님이나 우리 멤버들이나, 다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차원적인 뜻만 생각하고 만든 셈이다. (웃음)

정확하게 활동을 개시한 건 몇 년일까요.

당시에 오디션을 본 게 있었으니, 아마 1968년도일 거다. 신중현씨도 바로 옆에서 본 기억이 있고 이미자씨나 최희준씨가 쇼를 열면 펄 시스터즈와 같이 서기도 했으니. 처음에는 여자 여섯 명이 함께 연습하며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다. 그러다 미 8군 오디션이 다가올 때쯤 퍼스트 기타가 사정이 생겨 밴드에서 나가게 됐고, 단장님이 데려온 남자 한 명과 몇 개월을 다시 연습한 뒤 미8군 오디션에 나갔다. 그때 서파리스(Surfaris) 'Wipe out'과 같은 곡으로 B+ 등급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가요 무대에서의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 미8군 사단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틈틈이 국내 가요 무대에 출연했다. 그때 배호씨의 마지막 공연에도 나갔고, KBS 사육이 남산에 있을 때 김상희씨와 함께 생방송을 하기도 했다.

드림을 시작할 때 영향을 준 노래나 뮤지션은 누구였나요.

우리 맘언니와 결혼한 형부가 한국 최초의 드러머 김윤옥 선생이다. 당시 음악 하는 사람은 일명 '판따라'라는 편견이 있었는데도, 우리 형부가 워낙 인물도 잘나고 인간성도 좋았던 터라 아버지와 맘언니도 형부에게 드림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주더라. 그때가 17살이었다. 마침 오빠도 아코디언을 연주해서 '음악하는 남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다.

당시 레이디버즈의 연주 실력은 어땠나요.

아우, 하식스나 키보이스같이 실력이 뛰어난 밴드에 비교하면 말도 못 하지 않나. (웃음)

미8군에서 연주했던 레퍼토리를 소개해주세요.

당시 우리 밴드의 단골 곡은 아까도 말했듯 서파리스(The Surfaris)의 'Wipe out'이다. 벤처스(The Ventures)의 'Shanghied'나 'Django'도 자주 연주했고, 비틀스 곡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특히 'I'm so tired'를 많이 연주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미8군 중 어디에서 주로 공연하셨는지.

전국의 부대란 부대는 다 돌았다. 미8군에는 밴드 비 클래스와 에이 클래스가 나뉘어 있는가 하면 패키지, 쇼 프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우리가 속한 쇼 클래스는 가격이 더 비쌌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대가 있을까요.

일반 반응이 좋은 부대가 가장 재미있다. 당시 무대는 사병 클럽, 중상사 클럽, 장교 클럽으로 세 개로 나뉘는데, 장교 클럽은 다들 점잖게 앉아 경청만 하니 조금만 틀려도 티가 나서 주눅이 들 정도다. 근데 또 사병 클럽으로 가면 함성이나 반응이 너무 좋다. 몇몇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밴드 멤버들을 보려고 바로 앞까지 무릎으로 기어 오기도 하고. (웃음) 중상사 클럽은 다들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공연에 온다. 어느 날 한 군인이 족석 카메라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한 장 찍어 건네준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나라는 카메라가 워낙 귀할 때라 정말 놀랐다.

애스컴은 고향이니까 더 반가웠겠어요.

그렇다. 어디를 가든 대우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고향과 같은 애스컴이 가장 반가웠다. 우리가 공연에 가면 미군 장교들이 커피도 권하고 토마토 주스도 줬다. 그때 토마토 주스를 처음 먹어봤는데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라 내 입에는 안 맞더라.



그러면 레이디버즈 이름으로는 활동을 몇 년 정도 하셨는지.

음악 활동 자체는 애스컴 밴드 시절부터 세면 꽤 길지만, 레이디버즈로는 2년 활동한 것 같다. 미8군은 2년을 하면 다시 오디션을 봐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에, 1968년에 시작하여 1970년에 활동을 마쳤다. 그리고 그때는 여자가 스물셋만 넘어가도 올드미스라 하던 시절이라 고등학생 때부터 5년간 펜팔을 주고 받던 군인과 결혼했다. 이후에는 내 자리를 장미화가 채운 것 같다. 다시 미8군 오디션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장미화와 임종임이 레이디버즈로 활동하며 동남아에 진출한 것을 보고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레이디버즈로 활동할 때 돈은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그 당시 월급 3만 3천 원에서 세금 10퍼센트를 떼고 3만 원을 받은 것 같다. 집에 1만 원 정도 드리고, 1만 원은 저금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용돈으로 쓰면서 좋은 의상과 신발을 맞췄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군 상사였던 남편의 월급이 8천 원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다.

레이디버즈로 활동하며 전국을 다니던 때를 어떤 시절로 기억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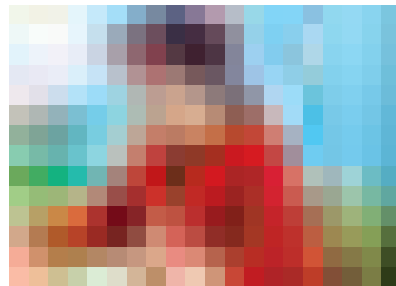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자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렇기에 빨리 그만둔 것에 서운할 때도 있었다. 중간에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의 부군을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젊을 때는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미 8군에서 공연한 사실을 말 못 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후에 말하고 난 뒤에는 무엇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당당하다. 지금은 사별한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잘 살아주어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음악 활동을 한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화를 내주기도 했다.

지금 많은 걸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다들 너무 실력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완벽하게 잘하는 친구들이다. (웃음)

레이디버즈 활동 이후 언제 다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우선 부모나 형제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음악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35년간 식당을 영업하느라 도저히 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50살이 되었는데 정말 음악이 미치게 하고 싶어 식당을 병행하며 여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 첫 시작은 부평에 있는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장구를 배웠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날 보고 혹시 예전에 악기를 다룬 적이 있는지 너무 익숙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 오래전에 드럼을 좀 쳤다고 말씀드리니 그때 인천 팝스 오케스트라에 드럼 자리가 비었다고 소개해주셨다.



인천시와 여성가족부가 인천 팝스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고문 자리에 앉아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정기 연주에 참여했다. 항상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오케스트라에 타악기 연주자가 5명 정도 필요한데 공가, 카우벨, 심벌즈, 징 같은 타악기 연주자 자리가 비면 채우고 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시간 여유가 더 생겨서 인천 그린 실버 악단에서도 활동했다. 김점도 선생님이 운영하던 오케스트라인데 김점도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함께 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960~1970년대만 해도 미국 진출이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최근 많은 K팝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정상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K팝 가수를 정말 뛰어내고 훌륭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최고였다. 특히 애스컴은 우리나라 음악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다들 악보를 보기는 커녕, 악기조차 제대로 배울 수 없던 환경에서도 선배들은 부대 앞에 있는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나 미군들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듣고 음악을 독학했으니까. 물론 흥내 내는 것을 시작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 K팝이 발전한 것이라 본다.

인터뷰 : 임진모, 임동엽, 장준환, 정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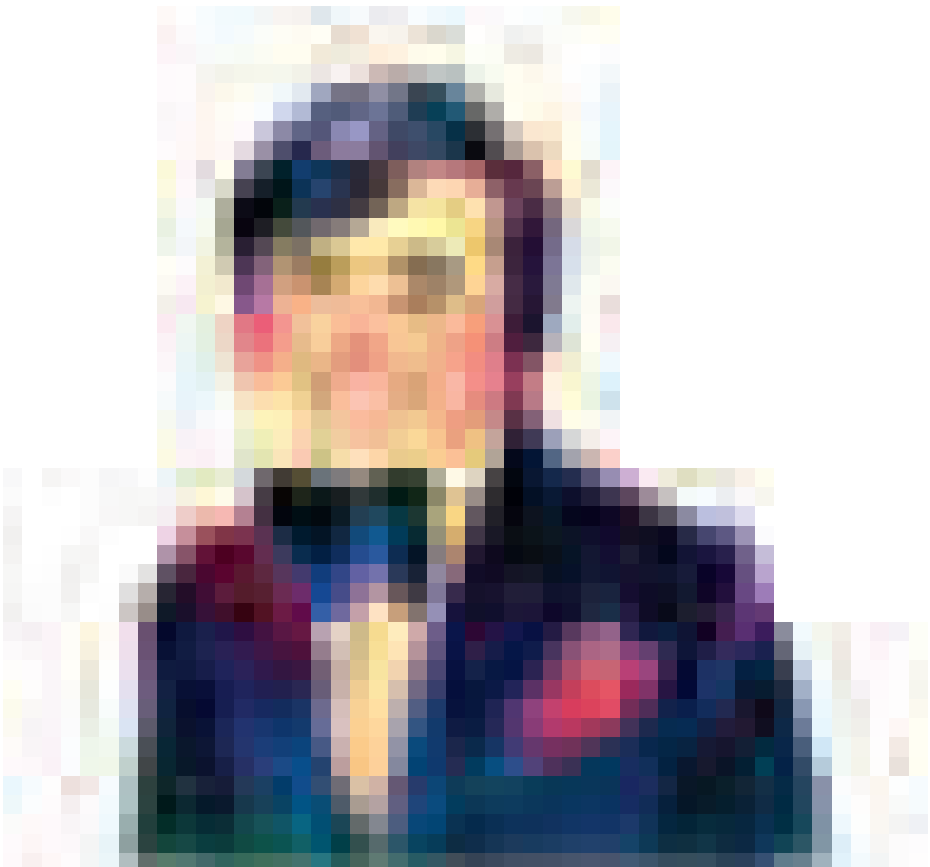
사진 : 임동엽

정리 : 장준환, 정수민

기획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열아홉 번째 만남(MEET)

자니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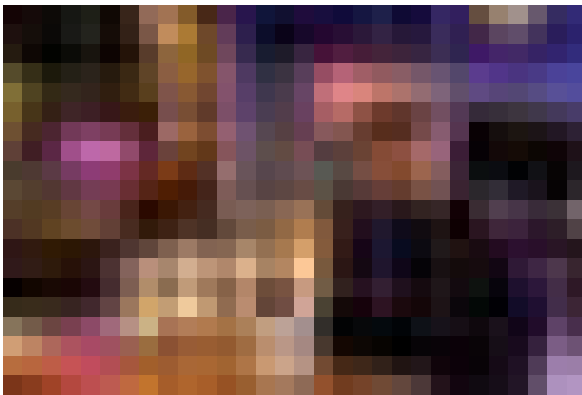


웹진 이즘(IZM)이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하는 < 음악 중심 문화도시 부평 MEETS 시리즈 >는 인천과 부평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는 시리즈 기획이다. 지금까지 이곳 출신의 여러 뮤지션들이 자리해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인천 부평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번 열아홉 번째 주인공은 부평의 애스컴(ASCOM)에서 첫 음악활동을 시작한 원로 뮤지션 '자니 리'다.

“나는 음악으로 살다가 음악으로 죽고 싶어요”

1938년생으로 올해 나이 84세. 원로 가수 자니 리는 여전히 음악을 즐긴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난 그의 인생 회고는 역사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웠다.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 6.25 전쟁을 견디고 미국인 양아버지를 만나게 된 일화,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의 노래 '내일은 해가 뜬다'가 금지곡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 등...

우여곡절 끝에 1957, 8년도에 '배를 타고 노래한다'는 뜻의 극단 쇼보트(Showboat)의 일원이 된 그는 이후 1960년대 당시 유행한 극장쇼 무대를 사로잡으며 인기 가수가 된다. 부평에 자리했던 미 군수지원 사령부(에스컴)는 그런 자니 리의 시작을 함께했던 공간이다. 아직은 찬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던 11월 말 종로의 한 라이브 공연장에서 그를 만났다. 전날 있던 지방 공연을 끝내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온 '전설'은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다. 몇 달 전 <복면가왕>에 출연해 3관왕 거머쥔 일로 이날의 대화를 시작했다.



얼마 전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3연승을 거두셨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유튜브 방송(자니 리 tv)을 하니까 아마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것 같다. 3연승을 한 건 어리둥절했다.

섭외 연락이 왔을 때 한 번에 출연 결심을 하셨나요?

사실 고민 좀 했다. 내가 최고 고령자인데 떨어지면 가면을 벗어야 하니까 창피할까 봐. 그래서 처음 가

왕이 됐을 때 깜짝 놀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하지 않나. 가창력도 풍부하고... 그런데 노래가 맛이 없어. 노래라는 건 '맛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창작력도 풍부해야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표곡인 '뜨거운 안녕'에 그 맛이 담겨 있어 계속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1966년도에 <뜨거운 안녕>이 나왔다. 그 앨범과 곡을 들어봐라. 지금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렀나 싶다. 그때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부른 건 '뜨거운 안녕' 뿐일 거다. 너무 '오버 킬링'하니까 신세기 레코드에서 내지 말자고 했다. 가수들이 전부 노래를 정박자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랬을 때니까. 근데 나는 그 느낌을 '표현'한 게 아니다. 어린 나이에 피난 내려왔던 내가 이제 레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감동스럽고 앞으로 돈도 좀 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도 났던 거다. 그 감정을 음반에 그대로 옮겼다.

활동명을 '자니 리'라고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양아버지가 '자니(Johnny)'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자니라는 건 외롭고 귀엽고 뭐 그런 뜻이었다. 'Johnny is lonely boy(자니는 외로운 소년)'라는 말도 있던 것 같고, 자니는 외로운 거다. 내가 고아 출신이니까. 거기에 내 성인 '이'를 붙여서 자니 리가 됐다. 양아버지가 나를 '슈플라이'라고도 불렀다. 그 당시에 '슈

사인(Shoe shine) 보이가 많았다. 미군들 군화 코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꼬마들이다. 그곳만 반짝반짝하게 닦으니까 파리가 미끄러진다고 해서 만들어진 '슈 플라이'가 내 별명이었다.

양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당시 기생은 일부종사, 평생 한 남자만 만나야 했다. 기생 학교에 다니면서 활동도 잘 쓰고, 서예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장구도 잘 치는 요새 같으면 탤런트 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연극배우를 하던 중국 사람인데 금방 집을 떠났다.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그러다 1951년도 13살 때 피난 내려와서 1954년에 미국인 양아버지를 만났다. 영어를 귀동냥으로 배우면서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하라면 노래도 하고 그랬다.

말씀은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노래하실 때는 정말 호랑이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다. 옛날부터 리듬 앤 블루스를 좋아했다. 가수들이 박자에 맞춰서 노래해야 되지만 리듬 앤 블루스는 애드리브도 있고 가창력도 있어야 한다. 아주 헤비한 록 보이시도 많이 쓴다. 또 노래가 때로는 재즈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쿨하다. 음악 분야에서는 아무나 못 하는 거다. 마음을 울리는 것도 있고.

레이 찰스, 스티비 워더, 조지 벤슨, 마이클 볼튼 같은 사람들은 노래가 거의 애드리브다. 다른 사람 노래를 리메이크해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음악에 젖어서 노래하다 보면 이성을 잃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는 가창력이 나오고.

과거에 즐겨 부르셨던 노래도 궁금합니다.

넷 킹 콜, 토니 베넷 같은 스탠더드 노래를 많이 했다. 그런 고운 음악을 부르다가 록 블루스 쪽으로 마음이 가더라. 옛날에 우리가 노래할 때는 '극장쇼'라는 게 있었다. 고인이 됐지만 정원이란 가수와 나는 남들이 가만히 서서 노래할 때 우리는 청바지 입고 춤추면서 노래했다. 현재의 아이돌 같은 거였다.

그 시절은 여성들을 대학에 안 보낼 때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그분들이 거의 다 팬클럽이었다. 어른 앞에서 눈도 못 뜨고 그럴 때인데 우리를 소개하면 소리를 지르고 고무신 날라 오고 그랬다. (웃음)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처음일 거다. 한바탕 난리가 나서 공연이 끝나면 주인 잃은 고무신이 한 가마니가 됐다.

말씀만 들으면 정말 가수가 천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꿈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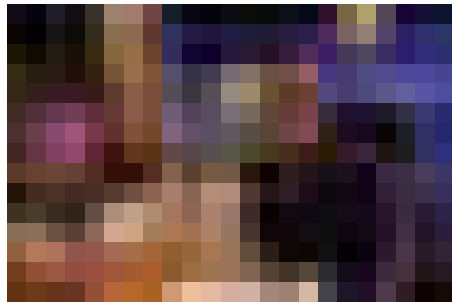
아니다. 우연히 가수가 됐다. 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본 적도 없다. 옛날에 부산에 '하야리아 부대'가 있었다. 내 양아버지가 별 세 개 달린 미군 장교였다. 그 부대에서 아버지가 피아노치고 내가 노래하고 그랬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수가 된 거다.

그러면서 미8군 무대에도 오르신 건가요?

양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던 게 없어서 미8군부대를 들락거렸다. 일

반 단체하고 미8군 가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8군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영어 발음이 좋지만 일반 단체는 영어가 엉터리다. 미8군에서 공연하는 밴드들은 오디션을 보고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

스페셜 A를 받으면 한 달 정도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미8군에서 나온 사람들 들은 사회에서 대접을 좀 해줬다. 등급이 높았던 거다. 난 13살부터 양자로 있었고 나름 언어에 소질도 있었다. 조실부모한 내가 학벌이 있었겠냐? 언어부터 노래까지 전부 노력하고 직접 터득했다.



미8군에 활동하셨던 거는 그럼...

1957년이였다. 당시에 현미는 무용을 했고 한명숙 씨는 노래를 할 때다. (당시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한국 가수들이 8군에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햄버거를 줬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맛있었다. 디저트로 파인애플, 바나나도 줬는데 평생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었다. 아이들을 주겠다고 이런 음식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또 작은 유리병에 담긴 콜라를 그때 누가 먹어봤겠나.

미8군 때 한 캠프에서만 있으셨던 건가요?

오산, 평택, 의정부에도 있었다. 그쪽은 전부 미군 기지니까. 미8군 생활할 때는 그쪽을 오갔다.

부평 애스컴에도 자주 들리셨나요?

1957년에 연예계에 입문해서 1959, 1960년쯤에 다녔다. 내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애스컴이다. 개인적으로 미8군부 무대에 많이 서진 않았다. 따로 오디션을 보지도 않았고, 양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자니? 싱!” 하면 내가 노래를 불렀다. 워낙 어릴 때니까 그 사람들의 귀여운 장난감이었다. (웃음)



공연료가 꽤 높으셨을 것 같아요.

몇 푼 안 됐다. 당시에 단장이 지금의 기획사나 다름없다. 그가 모든 걸 주관했고 공연해서 받은 돈을 자기가 거의 다 챙겼다. 얼마 안 줬도 투덜거릴 수 없었다. 얘기하면 그냥 잘리니까. 피곤하고 살기 어려울 때였다.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도 없었고 누구나 돈 돈 돈 했다. 딱히 돈을 못 받아도 그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힘으로 노래 불렀던 시기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가수가 됐다.

1960년대에는 '극장쇼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극장에 간판만 붙여놓으면 정말 소동이 났다. 내가 1960년도에 도요타의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알랑 드롱처럼. 엉마주이 같이 낡은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무대에 올랐다. 핸드마이크가 없을 때라 스탠드 마이크를 썼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객석 앞까지 나가고 그랬다.

오랜 기간 작자 미상의 민중가요로 알려져 있던 전인권의 '사노라면'이 선생님의 노래였습니다.

왜 오리지널 가수라고 밝히지 않으셨나요?

원제는 '내일은 해가 뜬다'이다. 〈뜨거운 안녕〉 음반에 같이 있다. 1966년 즈음 방송국에서도 많이 들고 꽤 알려졌던 곡이다. 그런데 갑자기 금지곡이 됐다. 그때는 특하면 금지곡이 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가 '해가 뜬다'고 노래를 하니까 역적모의로 비쳤나 보다.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라고 그런 거겠지만. 그렇게 한동안 잊고 있다가 미국에서 돌아오니 민중가요로 불리고 있더라.

공식적으로 오리지널 가수라고 밝힌 게 2000년대 초쯤이었나요?

KBS에서 내 음반 〈뜨거운 안녕〉을 가지고 집에 왔다. 피디가 “여기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예요?”라고 묻길래 전인권 노래가 아니라 내가 1966년에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말했다. (정확히는 2004년 가요평론가 박성서가 소장해 오던 〈자니 리 가요앨범〉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이 음반에 '내일은 해가 뜬다'가 실려 있었고 이 곡의 원작자가 자니 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편집자)

"인터뷰는 종로 3가에 위치한 '청춘극장'에서 이뤄졌다. 자니 리는 이곳의 전속 뮤지션이다. 극장쇼를 많이 했던 그가 지인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5개월 전쯤 이 공간을 차렸다. LP판이 가득했고 음악을 틀 수 있는 디제이 부스도 있었다. 아, 반짝거리는 일명 '사이키 조명'이 화려하게 무대를 비추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연장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장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형님", "선생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몇 달 전 '바보 사랑'이라는 싱글을 낸 자니 리는 여전히 청춘이며 늘 그랬듯 잘 나가는 가수였다.

요즘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창 활동하실 때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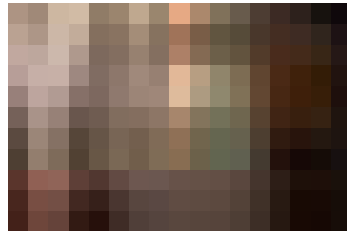
그때는 미국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90%는 뺑이었다. 옛날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 내용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쇼로 만들어 공연하는데 영화에서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조명이 기가 막혔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놀라운 곳이 미국이었으니까 당시에 미국에 진출하는 건 꿈도 못 꾸었다. '내 음악에 버터 냄새가 좀 난다'라는 걸로 만족했다.

그럼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손자뻔 되는 젊은 친구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걸 보시면 어떠세요?

대단하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더라. 자기들이 텔레비전 보고 배운 영어라고 하는 데 정말 천재구나 싶다.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린 게 아이돌 가수들이다. 방탄소년단이나 다른 아이돌 가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 거 아닌가.

부평구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기획 앨범에서 가수 인순이가 선생님의 '뜨거운 안녕'을 리메이크한다고 합니다.

인순이 노래를 좋아한다. 가창도 좋고 무엇보다 소울이 남다르다. 약간 재지하게 리듬도 조금 바꾸고 하면 곡의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음반을 발매하면 내게도 꼭 보내 달라. 인순이에게는 기대한다고 전해주고. (웃음)



60년 이상 노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음악이란 무엇 일까요?

음악으로 죽고 음악으로 살고 싶다. 보통 가수들이 은퇴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왜 하고 싶은 음악을 안 하고 중간에 나이 먹었다고 멈추는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 나는 평생 노래하고 싶다.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즐겁다. 내가 여든이 넘었는데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고? 노래 덕분이다.

젊은 노장과의 대화는 즐거웠다. 빛이 바랬을 법한 기억들도 연도를 포함해 정확하게 들려줬고 필요할 땐 서슴없이 노래를 불렀다. 단단하고 탄탄한 경험을 간직한 자니 리의 이야기에선 꽃꽂한 기세가 느껴졌다. 공연장을 떠나려 하자 몇 번이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면 자니 리. 이 따뜻한 말의 건넌을 받으며 이것이 어쩌면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영원한 가수 자니 리와의 만남은 뜨겁고도 뜨거웠다.

인터뷰 : 소승근, 박수진, 정다열, 장준환

사진 : 정다열

정리 : 박수진

기획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스무 번째 만남(M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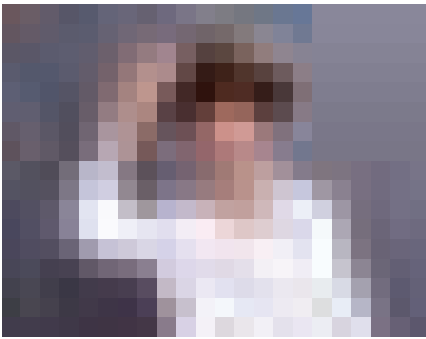
서 수 남



웹진 이즘(IZM)이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하는 <음악 중심 문화도시 부평 MEETS 시리즈>는 인천과 부평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는 시리즈 기획이다. 지금까지 관련한 이곳 출신의 여러 뮤지션이 자리해 그들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인천 부평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하청일과의 콤비로 한국 컨트리 포크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뮤지션 서수남이다.

큰 키에 서글서글한 미소, 재치 있는 입담을 갖춘 서수남을 방송인으로만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의 중심은 음악이다. 하청일과 함께 내놓은 '동물농장', '팔도유람' 등 무수한 히트곡은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사랑받았고 '수다쟁이'는 한국 랩 음악의 시초로 평가받기도 했다. 격동의 1970년대, 서수남 하청일 콤비는 국민에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준 마술사였다.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옛날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미8군부터 시작해 하청일과 공유한 전성기, 선풍적 인기를 끈 노래 교실까지 씬 없이 달려온 그의 여정이 펼쳐졌다. 코믹함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멈추지 않는 열정을 확인했다.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된 것에 감사하다는 그에게서 대선배의 파스함과 인자함이 묻어나왔다.



선생님 요즘 근황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못 하고 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다. 주업이 방송과 강연인데 현 상황으로 인해 여러모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복면가왕에서 만나 뵈어 반가웠습니다. 출연하시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 추석 때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 고연령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을 찾고 있던 모양이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량 발휘를 못 한 게 아쉽다.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소년기에 접한 AFKN(주한미군방송)의 영향이 크다. 라디오에서 종일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특히 컨트리풍 곡들이 인상적이었다. 음악 잡지를 사서 본 것도 큰 영향.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들을 명동 뒷골목에서 팔곤 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계기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계속 라디오만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명동에 있는 세시봉이라는 음악감상실에 출입하게 되었다. 거기에 가보니 미 8군 부대에서 나온 컨트리, 팝 음반이 가득했다. 그래도 영어엔 자신이 있던 터라 가사를 나름대로 해석해가면서 음악 탐구에 열정을 쏟았다.

기타는 종로 2가에서 처음 접했다. 세계 음악학원이라는 기타 교습소에서 '애수의 소야곡'이나 '황성옛터'를 연습했다. 어느 날 원장님께서 '배사메 무초'를 연주하시는데 그 룸바 리듬이 너무 강렬해서 '아름다운 멜로디 이외에도 또 다른 연주 세계가 있구나'란 걸 실감했다. 그렇게 기타를 잡고 미국 팝송들을 이질감 없이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았다.

음악을 한다고 할 때 부모님과 갈등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음악 하면 땀따라라고 부르며 경시하는 풍토였다. 어머니가 제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심하셨겠는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한양대를 입학했지만, 공부는 뒷전이었고 음악 감상실에서 사는 게 일과였다.

그렇다면 영혼의 콤비 하청일 씨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대학교 때 음악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났고 2학년 때 함께 콩쿠르에 나갔다. MBC가 주관하고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꽤 큰 대회였는데 거기서 돈 김슨의 'Oh lonesome me'를 불러 입상했다. 밴드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혼자 기타 반주와 노래를 곁들인 게 독특했나 보다.

그 대회에서 하청일 씨와 일행을 만났다. 자기네들이 지금 '아리랑 부라더스' 보컬 그룹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모자란다고 나보고 들어와 달라는 거다. 당시에 브루벨스라는 사중창이 있었는데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생각한 것 같다.

그 이후의 일들도 조금 더 들려주세요.

'아리랑 부라더스' 멤버들은 악보도 다들 볼 줄 아는 실력파였다. 나는 멜로디 파트였고, 몇 개월 함께 연습하고 워커힌 호텔의 가야금 식당에서 오디션을 봐 합격했다. 그런데 얼마 후 어처구니없게도 지나치게 큰 키 때문에 그림이 안 좋다고 나만 빠지게 되었다. (서수남은 190cm에 달하는, 당시로선 드문 장신이었다) 그 길로 미8군 각종 무대에 오르며 전문적인 음악 생활을 시작했다.

미8군 부대에 가보니 윙항기, 차도균이 락앤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더라. 나도 오디션을 봐서 호평과 함께 A 등급을 받았다. 웨스턴 주빌리 쇼라는 단체에 들어갔는데 나와 음악적 코드가 딱 맞아 만족스러웠다. 1967년부터는 컨트리 음악 방송 그랜드올오프리쇼에 참여했고 비틀스처럼 전기기타가 들어간 록 음악이 득세했던 시절임을 고려했을 때 참 인기가 많았다. 샤우터스, 김치스, 키보이스, 가이즈 앤 돌스 등 다양한 밴드들이 활약하던 시기다.

서수남의 애스컴 추억은 또렷했다. 그에게 애스컴은 최신 문물에 눈 휘둥그레지는 신천지이자 본인의 끼를 풀어헤칠 안정맞춤 무대였다. 펑크(Funk), 디스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분화한 블루스에 비해 현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감이 있으나, 컨트리 음악을 향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자명하다.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등 당대의 대표 뮤지션들도 음악 뿌리의 한 축에 컨트리기가 있었다.

미군들은 향수를 건드리는 컨트리 곡을 들으며 애상에 젖다가도 서수남의 전매특허 코믹 퍼포먼스에 열광했다. 탄탄한 실력과 빛나는 아이디어로 군부대를 들썩이게 했던 그는 애스컴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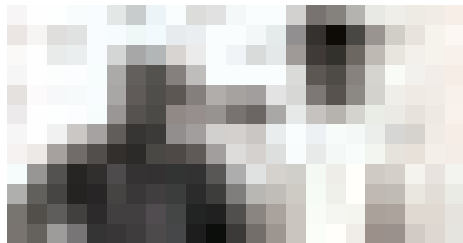
부평 애스컴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물론 생생하게 기억한다. 항구도시다 보니 모든 물자가 인천으로 들어왔고 보급기지인 애스컴이 자연스레 문화 일번지가 되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밴드 멤버들이 다 같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AFKN에서 나오는 최신 곡을 들려주면 반응이 정말 좋았다. 평소에 라디오 방송으로만 들던 곡을 라이브로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가.

그 당시 어떤 곡을 부르셨나요?

지미 로저스가 부른 '몰 스킨너 블루스(Mule Skinner Blues)'라는 고전 컨트리 곡을 자주 불렀고 요들송도 인기가 많았다. 우리는 컨트리 전문이다 보니 자니 캐쉬나 헵크 윌리엄스의 모창을 해서 관중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서수남 하청일 콤비로 '과수원길', '동물농장', '팔도유람', '수다쟁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어요.



현인의 딸 현혜정과 듀엣 활동을 하던 시기에 MBC에서 PD로 활동하던 김경태씨가 코믹한 노래를 부르는 콤비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곧바로 하청일을 떠올렸고, 이미 아리랑 부라더스의 이름으로 1964년에 녹음했던 '동물농장'으로 서수남 하청일 콤비의 서막을 알렸다.

'동물농장'은 해리 벨라폰테의 'I do adore her'의 번안곡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획기적인 창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벨라폰테의 곡에서 발상을 얻어서 만든 건 맞지만 번안곡이라기보단 제2의 창작에 가깝다고 본다. 녹음할 당시 암탉 소리 등 실제 동물 소리를 삽입하려 했으나 여건이 어려워 동물 모사를 한 게 외려 큰 인기를 끌었다. 공연할 때는 즉석에서 동물을 바꿔가며 모사를 했고 큰 웃음을 주었다.

'과수원길'이라는 곡은 인기가 워낙 대단하여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콤비는 3개 방송사(KBS, MBC, TBS)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요를 많이 불렀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팬들이 참 많았다. 어느 날 '과수원길'을 듣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작곡자인 김공선 당시 신림초 교장에게 '이 곡 취입해도 될까요?'라고 여쭙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녹음한 곡이 슈퍼 히트를 기록했다.

코미디언과 뮤지션을 아우르는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정체성이 성공 비결이라 고마운 마음이다. 가수가 전업이었지만 구봉서, 박규석 같은 대선배들이 우리를 참 예뻐해 주셨다. 이홍렬, 임하룡, 이용식 같은 코미디언 후배들과도 친분이 많다. 그리고 사실 진지한 곡도 안 알려졌을 뿐 다수 발표했다. 1970년부터 91년까지 활동했으니 여러 스타일의 곡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다쟁이'는 현재 한국의 랩 음악의 효시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한다. 그 곡 이외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삼척'이라고 줄줄이 읊는 '팔도유람'도 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가사를 읽는 노래가 없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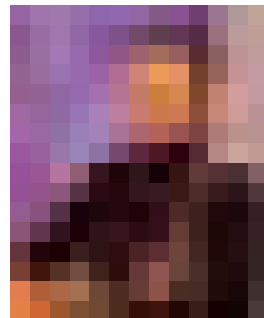
오리지널 곡에 대한 열망은 없으셨나요?

1985년에 발표한 트로트풍의 '친구가 그림구나'가 자작곡이었다. 하청일과 헤어지고 나서도 작곡을 꽤 했다. 1992년엔 〈세상사는 이야기〉라는 독집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선풍적 인기를 끈 노래 교실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가곡을 함께 부르는 가곡 교실은 있었다. 반면 나는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모티브를 얻은 가요 교실을 도입했다. 작곡가 길옥윤이 노래방의 시초가 된 150곡 정도의 가요 반주를 만들었고 그 곡을 노래 교실에도 사용했다.

꽃꽃이나 붓꽃씨 같은 정적인 취미생활이 주를 이룰 때인데 노래 교실은 훨씬 동적이지 않은가.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퍼져서 나중에는 회원이 천 명이 넘어갔다. 커다란 강당을 빌려야 했다. 그렇게 10여 년간 노래 교실을 이어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선생님을 자주 봐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동안 노래 교실 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MBC <브레인 서바이벌>에 패널로 나가면서 인기를 끌었고 방송 활동을 계속해왔다. 가수와 코미디언, 예능 패널을 아우르는 멀티 엔터테이너의 시초가 아닐까 싶다,

현재의 국내 대중음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데뷔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1970년대에도 내가 주로 구사했던 컨트리와 디스코, 록 등 다양한 장르가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다양한 스타일로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서 후배들이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신다면요?

대중음악은 늘 사랑받아왔지만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무언가 소외되어 있었던 것 같다. 탄파라라고 불리던 시절에 데뷔했는데 언젠가부터 연예인이라는 칭호가 생기고 지금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직업이 되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짧은 요즘 가수들의 수명에 비해 꽤 긴 시간을 활동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BTS를 통해 한국이 문화예술 강국임이 입증되었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공연장을 비롯한 대중음악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국가적인 제도로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더욱더 단단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 손기호, 염동교, 장준환

사진 : 본인 제공

정리 : 임진모, 염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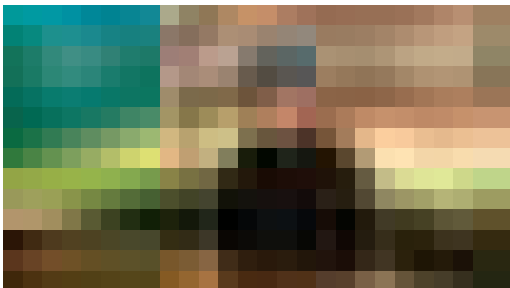
기획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스물한 번째 만남(MEET)

버텀라인X락캠프



웹진 이즘(IZM)이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하는 < 음악 중심 문화도시 부평 MEETS 시리즈 >는 인천과 부평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는 시리즈 기획이다. 지금까지 관련한 이곳 출신의 여러 뮤지션이 자리해 그들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인천 부평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면, 이번에는 오랫동안 업력을 지켜오며 지금의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공헌한 장소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인천의 재즈클럽 '버텀라인' 대표 허정선과 라이브 클럽 '락캠프' 대표 정유천이다.



[인천 재즈클럽 '버텀라인' 대표 허정선]

버텀라인과 락캠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허정선 : 버텀라인은 1983년에 연 인천 최초의 재즈 클럽이자 대한민국 3대 재즈 클럽이다. 스무 살 때부터 10년 정도 손님으로 오다 너무 좋아서 단골이 되고, 그러다가 스물아홉 살 때 인수를 해서 지금 27년째 운영하고 있다. 옛날에는 라이브 공연을 보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시대였다. 왜 우리가 흥대에 가서만 봐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곳을 둘러보다 공간의 크기와 분

위기가 라이브 공간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

정유천 : 락캠프는 1997년 부평삼거리에서 시작한 인천 최초의 라이브 클럽이다. 사실 옛 세대의 밴드는 연주할 수 있는 곳이 나이트클럽이나 고고장 같은 밤업소뿐이었다. 거기선 내 음악이 아닌 손님을 위한 음악을 해야 하다 보니 거의 팝송이나 록 음악을 커버해서 연주해야만 한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인디 문화가 태동하면서 흥대 쪽에 드럭, 프리버드, 롤링스톤즈, 뽕 같은 라이브 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의 음악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 스스로가 창작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는 걸 보고 인천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 설립하게 되었다.

허정선 씨의 경우 버텀라인의 5대 대표로 알고 있다. 뒤의 빼곡한 LP는 초창기부터 보관해온 음반인지.

허정선 : 세어 보니 내가 5대더라. LP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양이 많이 늘었다. 거쳐 간 주인들이 다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보니, 인수 과정에서 개인이 애장하는 3분의 1은 가져가는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문율이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하나둘 모았고 지금 80% 정도가 내가 모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초창기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을까.

허정선 : 지금은 무대와 악기, 음향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만 그때는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무대가 없었다. 그리고 창문도 없었고, 한 10년 정도 운영하다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보고 싶어서 창문을 내었다. 그전까지는 캄캄한 창고 같았다. 처음에는 한쪽에 의자와 피아노를 두고 조그만 무대를 마련해 시작했다. 이후로 피아노는 그랜드피아노로 바꾸고, 테이블을 줄여 무대 공간을 조금씩 넓히고, 단을 올려 지금의 버텀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27년 동안 눈에 필 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치고 다듬어 가고 있다.

버텀라인은 장소가 100년이 넘는 근대 건축물인 만큼,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가 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허정선 : 깜짝 놀란다.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바깥에서 외관만 볼 때는 이 공간이 크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한다. 막상 열고 들어왔을 때 뽕 뿜린 공간을 보면 다들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다. 처음 여기 손님으로 왔을 때는 창문도 없었기에 아주 캄캄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음악은 아주 크게 나오는데 천장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으니까. 테이블에 촛불 하나씩 두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점점 시야가 밝아지면서 눈에 하나씩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때만 해도 오래된 건물에 천장을 높게 뚫어서 만든 공간이 많지 않았다.



[인천 라이브 클럽 '락캠프' 대표 정유천]

이름엔 '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락캠프라는 이름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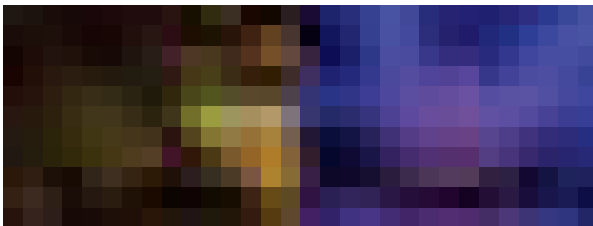
정유천 : 1960년대 중후반, 정확히는 아홉 살 때부터 부평에서 자랐는데, 당시 부평에는 애스컴이란 미군 총괄 기지가 있었다. 그런데 보통 예하에 있는 부대들의 이름 앞에 거의 '캠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지금 남아 있는 '캠프 마켓'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 캠프라는 단어를 썼고, '락'이야 당연히 밴드들이 주로 하는 음악이 록이라서 붙이게 되었다. 포병 기지, 보병 기지가 있듯이 '락캠프'라는

처음 부평삼거리로 거점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

정유천 : 과거엔 그 동네를 '신촌'이라고 불렀다. 보통 '신촌'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동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부평 신촌 역시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20개가 넘는 클럽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지금은 일반화된 얘기지만 사실 이런 미군 부대와 클럽을 통해 서양식 음악이 점점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고, 당시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평을 많이 거쳐 갔다.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나 역시 명맥을 이어받아 부평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싶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 같다.

정유천 : 물론 있다. 라이브 클럽이 이익을 바라고 하는 업종은 아니기도 하고, 일단 너무 비싸면 운영을 할 수



▶(좌) 버텨라인 전경 / (우) 락캠프 전경

가 없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찾다가 그때만 해도 외진 동네였던 부평삼거리 쪽을 택하게 되었다.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공간이 한 80여 평 되니까 당시 클럽 중에선 아마 제일 컷을 거다. 웬만한 밴드들이 다 와서 자기는 이렇게 큰 공연장을 못 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버텨라인과 락캠프 두 곳은 모두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백년가게'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어가게'는 인천시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한 점포에게 주는 명칭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천의 세월을 머금은 두 장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거쳐간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발자국과 응원이 새겨져 있다.

가게를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허정선 : 비결은 따로 없다. 이젠 락캠프 사장님도 마찬가지일거다. 뭐랄까, 정말 자기가 빠져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못 한다. 사실상 바깥에서 벌어져 여기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고 싶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과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는 게 인생 모토다. 내가 버텨라인을 운영한 것만

27년이지만, 제가 여기 손님으로 온 것까지 하면은 사실상 인생을 같이 보낸 거다. 이곳에는 음악이 항상 있다. 내가 인수하기 전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버텨라인을 운영해왔고, 담긴 추억과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거다.

정유천 : 지금은 책임감이 있다. 락캠프를 지켜야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후배들이 설 무대가 남는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락캠프가 없으면 어디 가서 내 노래로 공연하기 힘들다. 특히 젊은 층을 위한 록 위주의 클럽이 많다 보니까 블루스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내 음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락캠프가 꼭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지역적인 이유도 있다. 부평이 클럽의 도시였다는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일한 클럽마저 없어지면 부평은 음악도시도 아니고 문화도시도 아니게 되는 거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락캠프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그 기준을 20년으로 완화시켜주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백년가게'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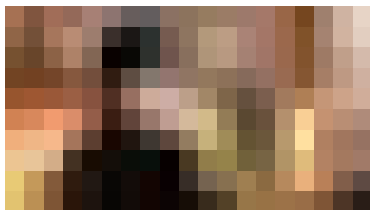
정유천 : 좋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라에서도 인정해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클럽은 업종이 따로 없고 법적으로 일반음식점과 동일하다. 일반 업종이 아니면 아예 유흥으로 받아야 한다. 근데 유흥은 손님이 노래하는 거니까 또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공공기관에 얘기해도 다른 식당과 똑같이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늘 아쉬움이 컸는데 백년가게에 선정되면서 24년 동안 이색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동한 게 헛되진 않았다고 생각했다.

두 곳 다 정말 음악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 같다.

정유천 : 우선 기본적으로 부평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음악적인 DNA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도 '에스컴 블루스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는데 공원을 둘러싼 관객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 잘 모르는 밴드는 이 사실에 의아해한다. 근데 부평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외국의 팝이나 록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좋아해서 오는 분들이다. 정말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분이 많기 때문에 락캠프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다.

허정선 : 우리는 전문적인 재즈 마니아도 오고, 평범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분도 온다. 특히 버텨라인은 신청곡을 받고 있는데, 이 신청곡이란 말에는 본인도 듣고 싶지만 남한테 들려주고 싶은 설렘과 기분이 담겨 있다. 나 또한 다른 곳에 손님으로 갈 때는 난해하고 그런 것보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음악들을 신청한다.

버텨라인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들으면 비단 재즈만 다루는 공간은 아닌 듯하다.



[인천 재즈클럽 '버텨라인' 대표 허정선]

허정선 : 최근에는 가요와 팝도 틀어드린다. 물론 모두 틀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틀어드리려 하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고집이 굉장히 세서 가요는 절대 틀지 않았다. 그래서 손님과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화를 내며 나가는 분도 있었다. 지금은 그때 왜 내가 자존심 세우며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 한편 생각하면 여태까지 그런 소신과 고집으로 이 가게를 지켜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혹시 리스트를 살짝 볼 수 있을까.

허정선 : 여기 퓨전 재즈 허브 앨퍼트(Herb Alpert)의 'Rise'라는 곡이 있고, (장을 넘기며) 마일즈 데이비드, 쳇 베이커도 있고, 여기에는 콜드플레이와 에드 시런도 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니까 캐롤도 많이 신청한다.